

광산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장' 진행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 경청·소통 행정 발전 의견 청취 시민 2528명 참여·1289건 접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4% '친근한 소통·신속 처리' 호평

“공사하고 새로 간 보도블럭이 너무 울퉁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5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장'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먼저 시민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경청·소통을 구청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 2022년 7월14일 1회를 시작으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공원, 마트, 길거리 등을 다니며 시민 얘기를 경청한 것이 이번에 100회를 맞았다.

광산구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의 변화를 공유하고, 경청·소통 행정의 발전 방

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고자 이날 정책 공론장을 마련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 동안 참여한 시민은 총 2528명으로, 접수한 경청 건수는 1289건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접수한 제안·건의를 즉시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해당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시민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은 적지 않은 변화로 이어졌다. 비아동 청소년, 주민의 숙원이었던 청소년 자율공간(비아작당) 조성 및 개장,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26개소를 조성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인식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광산구가 지난 10월24~31일까지 8일간 시민 285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만족도가 94%(1148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3%보다 1%p 상승한 것이다.

만족 사유로는 '구청장과 친근한 소통'(52%),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광주 광산구는 지난 25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100회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론장'을 진행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 후 변화에 대해선 응답자 43%가 '시민 의견 적극 반영'을 1순위로 꼽았고, '행정 신뢰감 상승'(34%)이 뒤를 이었다.

365일 24시간 모든 시민에게 열린 경청 창구인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도 시민 만족도가 91%(시민 1405명 조사)에 달했다.

공론장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시민 120여명이 참여해 소통 방법, 개선 사항

등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해 그동안 참여했던 시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민선 8기 시작을 알린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외식업소 불황 극복 '특효 처방' 서구, 26개 업소 맞춤형 컨설팅 수료

광주 서구가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외식업 경영 전문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했으며 전문가들이 직접 26개소 매장을 방문해 △경영관리 △홍보·마케팅 △메뉴 개선 등 업소별 특성과 문제점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업소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가 절감을 위한 조리법 안내, 점심 시간대 단품메뉴 구성,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업소에 어린이 메뉴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층 확대를 위해 50대 고객 위주 업소에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조리법과 메뉴를 도입하고 플레이팅을 개선해 젊은 세대의 사진 홍보 효과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참여 업소들은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 방안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컨설팅이 실질적인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외식업소 영업자와 컨설턴트 등 25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컨설팅을 마친 영업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컨설턴트 소감 발표, 참석자들을 위한 경영 마인드 향상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컨설팅 사업이 외식업소의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4차 산업혁명' 특강 운영 북구, 다음달 9일 구청 회의실에서



광주 북구는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라는 주제로 황준원 교수의 4차 산업혁명 특강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스터)

이번 특강은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황준원 교수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이에 따라 달라질 미래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필요한 역량에 대해 수강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 참여한 수강생에게는 1000점의 주민참여 포인트(1만점 이상 적립 시 해당 점수에 상당한 상품권 제공)가 지급될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2월4일까지 특강 웹 포스터 QR코드 등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민생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민원 북구청장은 “이번 특강은 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과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동구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구, 2024 지방자치 콘텐츠 AI 디지털 부문 대상 수상

AI 헬스케어 육성 지원 사업 선정

광주 동구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콘텐츠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지방자치 TV가 주관하는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시상 분야는 AI·디지털,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이며 심사 기준은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 가능성,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동하 동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는 구도심 맞춤형 기반 사업을 통한 생태계 전환을 담은 '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건강증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 등과 협업,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빅데이터와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구도심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한 점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향후 이 사업을 바탕으로 동구만의 AI 헬스케어 스마트빌리지를 조성하고 건강관리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지원 생태계 또한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동구가 그간 추진해 온 AI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동구 맞춤형 사업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평화도슨트' 활동 평가회 개최 남구, 29일 구청 6층 회의실에서

광주 남구는 오는 29일 오전 구청 6층 회의실에서 '시민 통일강사 평화 도슨트 활동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평화 도슨트 활동가와 통일교육 분야 전문가 등 35명여가량이 참석하는 이날 평가회에서는 도슨트로 활동한 주민 서현미씨가 지난 1년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펼친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활동 기록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시간 가량 기초 발제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서씨의 강의 내용과 수업 운영 정보를 공유한 뒤 올해 개인별 평화도슨트 활동 평가와 내년도 운영 방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평화 도슨트들은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미래 변화를 학생들에게 알리면서 남북 교류 및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디딤돌을 놓아 왔다”면서 “한해 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해 평화전도 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